



이것이 평가사담!

대구경북지원 박도희 과장

고객홍보팀

지글거리는 태양, 차 속에 있어도 ‘웰던(well-done)’으로 구워지는 것만 같던 어느 날, 날 잡은 양 대구경북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의 목적지는 경북 상주에 위치한 올봄, 2016년 우수직원상(종합) 표창자 중 한 명인 박도희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인터뷰에 앞서 조사를 하며 추측해본 그는 ‘판정은 눈 감고도 하겠구나.’ 싶은 자타공인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리고 올해로 평가사 생활 21년 차를 넘겼다는 사실에 우수직원상을 받았다는 것이 더해져 이 추측에 나름의 확신을 가졌었다.

최종 결론은 맞고도 틀렸다. 일단 그가 경력 20년을 너끈히 쌓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오랜 경력을 쌓은 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내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요!’ 무드는 없었다. 오히려 학생과 학자의 중간쯤, 여전히 높은 배움과 연구에 대한 의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보다 더 큰 교훈을 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축병원에 우수한 인재가 엄청 많은데 내가 인터뷰를 해도 될까 모르겠다. 우수직원상 받을 때도 내가 과연 받아도 되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인터뷰까지 한다니 더 민망하다.”고 인터뷰 서두를 열었다. 그리고도 인터뷰 중간중간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더 많이 고생하고 축산발전을 이끈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며 미안해했다.

이날 박도희 과장을 만나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히 외양이었다. 마른 듯한 체형, 전체적으로 선이 가는 그는 말을 할 때도 신중히 고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대화가 본격화되고 보니 내뱉는 발언들에 담긴 의지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강렬했다.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 무슨 얘길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고민하다가 좀 준비해봤다.”며 그가 내놓은 자료를 역시 그간의 고심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특히, 닭에 대한 그의 애정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가 닭고기 등급판정과 첫 연을 맺은 것은 2007년 8월, 고령출장소 키토랑에서 출장 판정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때는 닭 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데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 닭 판정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게 되더라.”는 그의 근무 이력 속 닭과의 끈끈한 인연은 현재까지 총 8년 6개월에 달한다.

그의 이력에 의미를 더한 점은 그가 닭고기 판정에 뛰어든 2007년 8월이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5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워든 사업 초에는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다 한 번 중단됐던 후니 어려움이 없을 리 없었다. 게다가 그는 축병원 내에서도 닭고기 등급판정을 위한 품질평가사 자격을 일찌감치 딴 편이다.

66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즐거운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99



“예전에는 작업장에 상주하고 있어도 등급판정 불량이
도계물량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해 참여업체에서 관심이
없었다. 축산전문 지식을 전해도 들으려 안 했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도 반영이 안 됐다. 지금은 얘기하면 귀담아듣고
받아들어준다. 많이 좋아진 거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옛날엔 등급표시가 최우선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밀리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며 표시방법 개선을
위해 업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판정물량을
늘리는 데 앞서 축평원은 물량을 늘리고 업체는 작업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win-win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기도 하다.

관리에 있어서도 기록표, 신고서와 전산시스템인 K-grade가
삼위일체를 이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직접 양식을 따로

만들어 매일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꿀 영주에서
꿀 등급판정을 한데 꿀 하면 꿀 판정도 배워보고 싶다.”고
욕심도 내고 있다.

수신 있으면서도 또 한없이 겸손한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내가
너무 좋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는 자기반성도 해봤다. 하지만 “나는 ‘우리는
축산물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우리 회사 미션을 참 좋아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즐거운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데는 방법이 없었다. “네. 넘어
전문가이십니다. 최고세요.”라고 할 수밖에... ㉞



박도희 과정을 보는 이 한 컷

“평가사는 현장에 있는 모습이 당연한 것이니겠나, 가장 나를
잘 보여주는 것도 현장에 있는 모습일 것이다.” 본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뭐일지 대놓고 불었을 때 박도희
과정의 답이다. 그리고는 닭고기등급판정 모습이 잘 보이는
곳, 현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눈 팔자보다 현장 이곳저곳을 더 바쁘게 오갔다.
결국 고른 것은 판정하는 모습.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그나운 모습일
것으로 확신한다.